



인니, 43개국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재개... 4월 6일부터 적용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동향

Vol. 53



엔데믹 (endemic)으로?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인니, 43개국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재개... 4월 6일부터 적용

아세안 9개국에 무비자 허용 43개국 대상 도착비자 발급 재개



▲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 3터미널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무부 이민국을 통해 해외입국자의 관광 및 방문을 위한 도착비자 발급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4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정책으로 아세안 9개국(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에서 오는 외국인도 무비자로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으며, 43개국의 외국인에게는 관광을 위한 도착비자(VKSK)가 허용된다.

이번 정책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19개의 지정된 출입국관리소(TPI)를 통해서만 인도네시아에 입국할 수 있고, 출국은 모든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할 수 있다.

입국이 가능한 공항 출입국관리소는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발리 응우라 라이 공항, 북부수마트라 꾸알라나무 공항, 동부자바 주안다 공항, 남부술라웨시 하사누딘 공항, 북부술라웨시 삼 라플

랑이 공항, 족자카르타 공항 등 7개소다.

도착비자 발급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남은 유효한 여권, 왕복항공권, 도착비자 지불증명서 및 보험증서 등을 준비해

야 한다.

도착비자 비용은 50만 루피아이며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하고 한 번 연장이 가능하다.

도착비자가 허용되는 43개국은 한국을 포함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아르헨티나, 호주, 네덜란드, 벨기에, 브라질, 브루나이, 다루살람, 덴마크, 필리핀, 핀란드, 헝가리, 인도, 영국, 이탈리아, 일본, 독일, 캄보디아, 캐나다, 라오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얀마, 노르웨이, 프랑스, 폴란드, 카타르, 뉴질랜드, 세이셸,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대만, 태국, 중국, 동티모르, 튀니지, 터키, 아랍에미리트, 베트남 등이다.

[자카르타경제신문]

노동부, 올해 종교축일수당(THR)은 분할, 유예없이 일시불 지급토록



▲ 루피아 지폐 (사진= ANTARAPhotos/M Risyaf Hidayat)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naker)는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 이전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종교축일수당(THR)에 대해 '명절 7일 전까지 지급' 할 것을 요청했다.

3일 비즈니스닷컴 등 매체에 따르면, 노동부는 국내 산업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종교축일수당을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노동장관령 '2016년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축일수당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2022년 종교축일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부 장관 회람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부 노사관계 및 노동사회보장국 인다 앙고로 뿌뜨리(Indah Anggoro Putri) 사무국장은 "올해 모든 산업의 성과 회복을 모니터링한 후 취한 조치"라며 긍정적인 경제성장의 움직임에 따라 올해는 지급 유예와 분할 지급 없이 종교축일수당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면 경고, 사업활동 제한, 생산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정지, 사업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단계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영향을 고려해 기업이 종교축일수당 지급을 유예하거나 분할 지급을 승인했었으나 올해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고용주협회(Apindo) 안퐁(Anton J Supit) 회장은 모든 사업 부문이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전액 지급에 문제가 있는 회사는 노사 간에 협상할 기회를 갖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국제관계부위원장 신타(Shinta Widjaja Kamdani)는 "회사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노사 간 상호 합의 하에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정부가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3일 드틱닷컴에 밝혔다.

[자카르타경제신문]

올해 르바란 연휴, 코로나 대유행 2년 만에 열흘 신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6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르바란 유급휴가대체일(Cuti Bersama)을 발표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5월 2일과 3일은 이돌 피트리(Idul Fitri) 국경일로 정하고, 4월 29일, 5월 4일, 5일, 6일을 유급휴가대체일(Cuti Bersama)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관계부처 합동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올해 르바란 연휴는 주말을 포함해 4월 29일(금)부터 5월 8일(일)까지 열흘 간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4월 6일 대통령 공유투브 채널을 통해 르바란 유급휴가대체일을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국 사무국 유튜브 영상 캡처)

계속된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과 2021년 인도네시아 정부는 2년 연속 귀성을 공식적으로 금지했었다가 지난달 23일

조코위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2차, 3차 접종자에 한해 올해 귀성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이번 르바란 연휴를 이용하여 고향에 가더라도 보건수칙을 계속 준수하고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교통부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7600만~7800만 명의 귀성객이 2년 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막혔던 귀성길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카르타경제신문]



한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세계은행, 동아시아 성장률 전망 5.4%→5.0% 하향

세계은행이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5.4%에서 5.0%로 낮추고 상황이 더 악화하면 4%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이날 내놓은 '2022 봄 동아시아·태평양 경제동향'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이 지역에 미친 영향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계은행은 계속되는 공급망 혼란이 이 지역 제조업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물가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5.5%보다 낮은 5%로 예상되며, 상황이 나빠지면 4%로 하락할 수 있다고 세계은행은 전망했다. 이 지역에서 중국 외 국가들의 경제는 올해 4.8%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상황 악화 시 4.2% 성장에 그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빈곤층이 60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미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이 지역 기업들이 새로운 공급과 수요 충격으로 타격을 받고 가계 실질소득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계은행은 이에 따라 가계와 기업에 대한 선별적 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상품·서비스 무역 정책의 개혁, 새로운 디지털 기술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술 개선과 경쟁력 강화 등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의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아디티아 마투는 성장률 타격을 정책 대응으로 다소나마 흡수할 수 있겠지만, 올해 남은 기간 매우 힘들 것이라면서 누구도 예상된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대 대통령직인수위에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 촉구

섬산련, '섬유패션계 경쟁력 강화의 정책 제언서' 전달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이상운, 이하 섬산련)는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서'를 지난 4일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우리나라 섬유패션산업의 위상을 회복하고 글로벌 트렌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번 제언서는 디지털, 친환경 등을 키워드로 세계 섬유패션산업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예산 확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섬유산업 중장기 R&D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섬유산업의 뿌리산업 지정, 국산소재 활용 확대, 친환경 섬유패션 활성화, 패션테크 클러스터 조성 등 섬유패션산

업의 외연 확장 및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계의 요구사항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또한, 면방, 화섬, 직물, 패션, 염색 등 업종별 주요 협단체 및 지역별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해 고용, 규제, 산업활성화 등 각종 애로 현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인력 신규 고용 허용인원 폐지 ▲탄력적·선택적 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및 주휴수당 폐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로 변경 ▲환통법 적용 기준 완화 등 섬유패션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 ▲리사이클 섬유산업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된 '대구지역의 섬유 염색 산업단지 첨단화'의 일환으로 ▲섬유패션업계 탄소중립 대응 지원 ▲염색단지 이전 및 기반 조성 ▲친환경 염색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등에 대한 이행도 촉구했다. 섬산련 관계자는 "이번 인수위에 제언한 내용은 R&D, 디지털, 친환경 등 섬유패션산업의 미래전략 추진과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속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업체 정책 지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제언서에 담긴 과제들이 향후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섬유패션단체 및 경제유관기관 등 다양한 소통채널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2022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천조금
1	PETRASAKTI	2022.01.28	Rp30,000,000			
2	MJARATUNGGAL	2022.03.16	Rp10,000,000			
3	BANGUN MAJU LESTARI	2022.03.30	Rp15,000,000			
4	PAN PACIFIC	2022.03.23		Rp30,000,000		
5	BUSANA PRIMA GLOBAL	2022.03.30		Rp30,000,000		
6	SUNGBO JAWA	2022.03.30		Rp30,000,000		
7	DOOSAN CIPTA BUSANA	2022.03.31		Rp30,000,000		
8	SIMONE	2022.04.01		Rp30,000,000		
9	EINS TREND	2022.04.01		Rp30,000,000		
10	ELITE SINAR ABADI	2022.01.03			Rp3,500,000	
11	ZIBEN	2022.01.11			Rp3,500,000	
12	TUNGGAL	2022.03.11			Rp3,500,000	
13	SEORIM	2022.03.11			Rp3,500,000	
14	DASAN PAN PACIFIC	2022.03.11			Rp3,500,000	
15	SOLVEIT	2022.03.11			Rp3,500,000	
16	DREAMWEAR	2022.03.11			Rp3,500,000	
17	HARINDO	2022.03.14			Rp3,500,000	
18	GUNUNG ABADI	2022.03.14			Rp3,500,000	
19	SUKWANG	2022.03.14			Rp3,500,000	
20	ANUGERAH ABADI BERSAMA	2022.03.14			Rp3,500,000	
21	GAYA INDAH	2022.03.14			Rp3,500,000	
22	KOTITI	2022.03.14			Rp3,500,000	
23	BLUE ROSE	2022.03.15			Rp3,500,000	
24	DAEDONG	2022.03.15			Rp3,500,000	
25	MERIDIAN	2022.03.15			Rp3,500,000	
26	KIDO MULIA	2022.03.16			Rp3,500,000	
27	TIGA KYUNGSEUNG	2022.03.16			Rp3,500,000	
28	KAHO	2022.03.17			Rp3,500,000	
29	YEON HEUNG MEGA SARI	2022.03.17			Rp3,500,000	
30	HANSOL PLEATS	2022.03.18			Rp3,500,000	
31	DONGYANG NISUSINDO	2022.03.18			Rp3,500,000	
32	DOORI	2022.03.21			Rp3,500,000	
33	SAMSAM JAWA	2022.03.21			Rp3,500,000	
34	SCENIC INTERNATIONAL	2022.03.21			Rp3,500,000	
35	JAEIL INDONESIA	2022.03.23			Rp3,500,000	
36	KG FASHION	2022.03.23			Rp3,500,000	
37	HARAPAN	2022.03.23			Rp3,500,000	
38	BBS	2022.03.29			Rp3,500,000	
39	PARAN INTERNATIONAL	2022.03.29			Rp3,500,000	
40	PELITA HARAPAN ABADI	2022.03.29			Rp3,500,000	
41	RINA JAWA	2022.03.29			Rp3,500,000	
42	TIGA GUNUNG	2022.03.29			Rp3,500,000	
43	UIB	2022.03.29			Rp3,500,000	
44	JIN MYOUNG	2022.03.30			Rp3,500,000	
45	DELTA MATE	2022.03.30			Rp3,500,000	
46	KNH GARMINDO	2022.03.30			Rp3,500,000	
47	ISTANA GARMINDO	2022.03.30			Rp3,500,000	
48	LSP INDONESIA	2022.03.30			Rp3,500,000	
49	GORI GLOBAL	2022.03.30			Rp3,500,000	
50	KORINA SEMARANG	2022.03.30			Rp3,500,000	
51	LEADERS WORLD	2022.03.30			Rp3,500,000	
52	DK INTERNATIONAL	2022.03.30			Rp3,500,000	
53	MYUNG SEONG MACHINERY	2022.03.30			Rp3,500,000	
54	LIMANTARA INDAH	2022.03.31			Rp3,500,000	
55	KARYA TRI ABADI	2022.03.31			Rp3,500,000	
56	KENCANA SSANGYONG	2022.03.31			Rp3,500,000	
57	GAYA MAKMUR	2022.03.31			Rp3,500,000	
58	TRESPASS	2022.03.31			Rp3,500,000	
59	TRADEWIND	2022.03.31			Rp3,500,000	
60	SEJIN GLOBAL	2022.03.31			Rp3,500,000	
61	YOUNGMYUN STAR	2022.03.31			Rp3,500,000	
62	PERMATA GARMENT	2022.03.31			Rp3,500,000	
63	JUN H	2022.03.31			Rp3,500,000	
64	ING INTERNATIONAL	2022.03.31			Rp3,500,000	
65	BUMA APPAREL	2022.03.31			Rp3,500,000	
66	PRESTASI	2022.03.31			Rp3,500,000	
67	JMTECH BUSANA GLOBAL	2022.04.01			Rp3,500,000	
68	ANUGERAH ABADI MAGELANG	2022.04.01			Rp3,500,000	
69	DONG IL	2022.04.01			Rp3,500,000	
70	MAJUEL	2022.04.01			Rp3,500,000	
71	PERTIMI INDO MAS	2022.04.01			Rp3,500,000	
72	KOTITI JAKARTA	2022.04.04			Rp3,500,000	
73	BOSJUNG	2022.04.04			Rp3,500,000	
74	PLS	2022.04.04			Rp3,500,000	
75	STARCAM APPAREL	2022.04.04			Rp3,500,000	
76	GUNUNG SALAK SUKABUMI	2022.04.04			Rp3,500,000	
77	CIPTA DWI BUSANA	2022.04.04			Rp3,500,000	
합계			Rp55,000,000	Rp180,000,000	Rp238,000,000	

공기순환 남성 골프화

미드솔의 공기순환 시스템으로발의 쾌적함과 발냄새 제거에 효과적이며, 폭신한 쿠션으로 무릎관절 보호가 됩니다 특히 천연 소가죽으로 견고하게 만들어 출시 하였습니다.



Art : BCS 001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2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3 G
Price : Rp. 1,2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4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Art : BCS 005 G
Price : Rp. 1,499,000
color :
size : 40 - 45



OPEN

LIPPO CIKARANG RUKO ROXY 에 BACAS AIR GOLF SHOES 매장 오픈

판매 품목

남성 : 골프화, 샌달
여성 : 신발, 단화, 샌달



CV. BACAS JAYA MAKMUR

주소 : Ruko Roxy Blok C No. 03, Jl. M. H. Thamrin Lippo Cikarang

Telp. Kantor : (021) 8990 7992

Contact Person, Kartika : 0812 8447 3931 Dhika : 0899 296 6527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 韓기업에 “투자·공급망 구축 협력하자”

전경련, 간디 솔리스티안토 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왼쪽)이 지난 1월 27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을 방문한 간디 솔리스티안토 주한인도네시아대사와 악수하고 있다. 2022.1.27.

간디 솔리스티안토 주한 인도네시아 신임 대사가 한국 기업인들에게 인도네시아 내 투자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간디 대사 초청 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디 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발생했으며 상품과 원자재의 부족은 가격 상승과 생산력 저하를 초래했다”며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원자재·중간재, 제조·물류·보관·유통의 생태계 강화를 위해 글로벌 공급망 구축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인도네시아의 5대 외국인 투자 중점 유치 분야로 ▲ 인프라 ▲ 수출산업 ▲ 그린에너지 ▲ 노동집약산업 ▲ 광업을 꼽으며 한국 기업의 전폭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간디 대사는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 긴밀한 협력을 보여주

는 사례로 최근 양국이 체결한 핵심 광물 양해각서(MOU)를 들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핵심 광물 공급

망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MOU를 지난달 22일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그는 올해 11월 중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G20 국가들의 재계 대표 모임인 ‘B20 서밋’에 전경련과 전경련 회원사를 초청했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는 ‘혁신적·포용적·협력적 성장 촉진’을 주제로 올해 B20 서밋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인도네시아는 평균 연령이 29세로 젊고, 2030년 경제 규모가 세계 4

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는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도네시아가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자원·제조업 투자국인 동시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첫 해외사무소가 설치된 곳이자 국산 제트엔진기와 잠수함을 최초로 구입한 국가라며 “많은 분야에서 우리에게 ‘1호’의 인연을 가진 특별한 나라”라고 평가했다.

권 부회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정을 체결해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약속한 만큼 조속히 협정이 비준돼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와 상수도·교통·전력 등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인프라 사업에 참여하고 전기·자동차·철강·석유화학 투자를 늘려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의 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 KCC글라스[344820], LX인터내셔널[001120], 롯데케미칼[011170], 하나은행, 신한은행, 삼성전자[005930], 현대차[005380], SK E&S, 포스코[005490], 현대엔지니어링, KB국민은행, 대웅제약[069620] 등 주요 기업 관계자 20여명도 참석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리포보험 인수...김동원 신남방 공략 속도

조건부 주식매매계약 체결, 47.69% 인수 예정...최대주주 올라

한화생명이 인도네시아 중형 보험사인 리포보험을 인수한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차남인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이 신(新)남방 공략에 속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5일 더구루 취재 결과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은 리포그룹 계열사인 인티 아누게라 프라타(Inti Anugerah Pratama)·스타퍼시픽(Star Pacific)과 리포보험 지분 47.69% 인수하는 조건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한화생명은 인티 아누게라 보유 지분 65.79% 가운데 42.79%, 스타퍼시픽 보유 지분 19.80% 가운데 4.9%를 각각 양수할 예정이다. 현지 금융당국 승인을 거쳐 인수 절차가 완료되면 리포보험의 최



▲ 올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와 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왼쪽). (사진=한화생명)

대주주에 오르며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화생명 인도네시아법인은 “인도네시아 보험 사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리포보험은 1963년 설립한 종합 보험사다. 건강보험을 비롯해 화재보험·자동차보험·화물보험 등 다양한 보

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지점을 두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98.54%, 총자산은 2조4300억 루피아(약 2100억원)다.

한화생명은 김동원 부사장 주도로 글로벌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사

업의 성장이 정체되자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시장에 집중하는 상황이다.

지난 2009년 국내 보험사 최초로 베트남에 진출했고,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영업을 시작했다. 동남아 보험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지만, 최근 중산층이 확대하고 소득 수준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에 반해 한화생명은 중국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있다. 한화생명은 중국 합작법인 중한인수보험유한공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지분율이 기존 50%에서 24.99%로 낮아지면서 2대 주주로 내려간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김재훈의 세무상식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 (PMK 70/PMK, 03/2022) 특정 과세 대상 서비스에 제공되는 부가세 (PMK 71/PMK, 03/2022)



김재훈 대표

조세조화법(HPP)이 2021년 10월 29일 발효되어 2022년 4월 1일부터 부가세율은 10%에서 11%로 인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실 몇주전만하여도 물가 인상등으로 인하여 연기 가능성이 있었지만 정부는 2022년 4월 1일부로 부가가치세(VAT) 세율을 10%에서 11%로 인상을 단행하였다.

개정된 조세조화법(HPP)에는 부가세 면세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서 생필품에 대한 부가세 부과 여부에 대한 issue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생필품에 대한 비과세 항목을 규정하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PMK 70/PMK.03/2022 규정을 확인하기 바람에 여기에는 간단히 재무부 보도자료 SP-39/KLI/2022 의 부가세 면세 품목에 대하여 아래 3, 4항으로 대신한다.

3. 다음을 포함한 특정 상품 및 서비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a) 쌀, 곡물, 옥수수, 사과, 대두, 소금, 고기, 계란, 우유, 과일, 야채 및 설탕

- b)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사회 서비스, 보험 서비스, 금융 서비스, 대중 교통 및 노동 서비스;
- c) 백신, 교과서 및 경전
- d) 깨끗한 물 (연결/설치 비용 및 고정 비용 포함)
- e) 전기(6600VA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가정에는 해당되지 않음)
- f) 단순 아파트, 아파트, RS 및 RSS
- g) 예배당 건설 서비스 및 국가 재해 건설 서비스;
- h) 기계류, 해양 수산 제품, 가죽, 종자/종자, 동물 사료, 어류 사료, 사료 원료, 원피 및 스킨, 은 수공예품 원료;
- i) 석유, 천연가스(파이프 라인을 통한 가스, LNG 및 지열 CNG) 및 지열
- j) 금괴 및 금알갱이(과립)
- k) 무기/방위 장비 및 항공 사진 장비.

4. 특정 상품 및 특정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음.

- a) 지방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다음과 같은 식품 및 음료, 호텔, 레스토랑, 레스토랑, 식품 포장 마차 등에서 제공되는 것
- b) 지방세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 주차공간 제공 서비스,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접객 서비스, 케이터링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스, 서비스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접객 서비스, 케이터링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

- c) 국가의 외환 보유고를 위한 돈, 금괴 및 귀중한 문서
- d) 정부에서 제공하는 종교 서비스 및 서비스.

상기 항목에 대해서 부가세는 여전히 면세로 유지된다. 부가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재무부에서는 PMK 58/PMK.03/2022부터 PMK 71/PMK.03/2022호까지 총 14개의 시행령을 공포하였는데, 위에 언급한 PMK 70/PMK.03/202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식음료,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접객 서비스, 주차 제공 서비스, 케이터링 또는 케이터링 서비스의 기준 및/또는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 이외에도 PMK 71/PMK.03/2022 특정 과세 대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가세 규정을 공포하였다. PMK 71호는 5가지 특정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세율이

11%로 변경됨으로써 청구금액의 세율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첫째, 우편 소포 배달 서비스의 경우 청구금액의 1.1%

둘째, 여행 서비스의 경우 청구금액의 1.1%

셋째, 운송 관리 서비스(화물 포워딩)의 경우 청구금액의 1.1%

넷째, 상품권을 이용한 마케팅 서비스, 상품권 유통 관련 결제 거래 서비스, 고객 충성도 및 리워드 프로그램 시행 서비스의 경우 상품권 판매가의 1.1%.

다섯째, 종교여행을 주선하는 패키지로서 여행 주선을 지정하는 경우 청구금액의 1.1%, 지정하지 않는 경우 청구금액의 0.55%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PMK 61/PMK.03/2022 는 자가 건설 활동에 대한 부가세 시행령으로 종전 2%에서 2.2%로 변경되었다. 상기

시행령들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별개로 PMK 68/PMK.03/2022 는 암호화 자산 거래(가상화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끝>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i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 분과 사무처장 및
-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 보고서 (공저, 2016, Koi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Top Coat
Substrate AZ 150
Base Metal
Polyethylene Foam 8mm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세계로 수출하는 산업용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1.0Mpa
- 연료 : 석유 / 목재 / 종이 / 석탄

노통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1T/H~15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 석유, 봉재, 신발, 기타 산업용 보일러
- 보일러 Maintenance(세관작업, 보수관리, 청관제)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株式会社 三湖보일러
SAMHO BOILER CO., LTD.
www.samhoboller.com

PT. YUSUNG JAYA ABADI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Tel : 021.5980.222 / 5982.666

한상윤 Hp : 0822 9999 1447 Fax : 021.5984.666

Ruko Tatac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938 0006
Jl. Setrekan-Pentol, Troso RT 007 / RW 010,
Kec. Pecangaan Kab. Jepara, Jawa Tengah, 59462.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인증서, G20 회원국간 상호 인정기로 합의



▲ 인도네시아 보건앱 (PeduliLindungi) 화면 캡처

주요 20개국(G20) 보건실무그룹(HWG)은 30일(수) 디지털 인증 포털을 통해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접종 증명서를 상호 인정하기로 만장일치 동의하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사흘 간의 첫 회합을 마무리했다. 3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보건실무그룹 막시 레인 룬도누우(Maxi Rein Rondonuwu) 위원

장은 전세계 국가들이 이동제한과 국경봉쇄를 점진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제안한 해당 이니셔티브에 대한 G20 국가들의 수용 결의가 국제간 원활한 여행과 교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백신 증명서에 대한 협의가 세계적인 교통망과 공급망에 순조로움을 더하고 전지구적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매우 핵심적인 사안을 다룬 것이며 그간 심각한 타격을 입은 관광산업을 재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시스템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구축한 양식을 사용해 QR 코드에 백신접종 일자 와 백신종류 등 정보를 담는 방식이다.

G20 회원국들의 범용 인증시스템 용도로 인도네시아가 개발한 디지털 포털은 QR 코드를 한번 스캔함으로써 해당 여행자가 공인된 기관에서 백신접종을 했

지, 몇 차례 접종했는지 등의 정보를 입국심사 시 쉽게 확인, 인증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을 제외한 G20 회원국 전체에서 해당 기술검증이 이미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한 국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이 이루어지는 국가로 악명이 높기 때문이다.

보건실무그룹은 오는 11월 발리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운영 가능한 관련 기술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막시는 해당 시스템이 G20 국가간 여행자 출입국 심사 절차에 실제로 탑재되기 앞서 해당 기술의 회원국간 정보처리 호환을 위한 여러 이슈들에게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을 위해 후속 세부 실무회의가 계획되어 있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들은 비록 디지털 백신 증명서 운용에 대해 만장일치로 동의했지만 각 국가들간 백신

접종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백신접종 증빙을 국제간 여행을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강제하지는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 대신 각국이 국제 여행자들의 입국을 허용하는 조건으로서 그들이 접종해야 할 백신의 종류, 해당 국가가 인정하는 검사 종류 및 검사 진행기관 등 국제간 여행을 위한 조건들을 각각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인정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부디 구나디 사디킨 장관도 앞서 디지털 백신인증서 사용을 G20 이외 국가로 확대 적용하고자 하나 코로나-19 정책 수립에 있어 각국의 주권적 권리를 여전히 존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실무그룹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백신인증서의 상호인정은 특정 국가에 입국할 경우 그곳에서 인정하는 백신증명서를 확보하기 위해 애를 먹곤 하는 국제간 여행자들에게 완벽

한 솔루션이 될 것이라며 보건실무그룹의 회의결과를 환영했다.

OECD 국제보건자문 닉 톰린슨(Nick Tomlinson)은 보건실무그룹 회의가 개최되던 3월 28일(월) 언론브리핑을 통해 현재 세계적으로 수십억 장의 디지털 백신접종 인증서가 발급되고 있지만 국가별 인증서 양식이 각각 달라 국가간 호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해당 시스템을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단절된 인증서들을 그 다음 단계로서 어떻게 상호 연계하느냐에 대한 국제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ECD는 WHO와 함께 G20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에게도 WHO의 코로나-19 디지털 백신증명서 양식을 사용하도록 종용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WHO의 전 동남아시아 이사 찬드라 요가 아디타마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디지털 인증을 위한 테스트를 좀 더 많이 한 후 해당 프로그램을 더 많은 나라들을 포괄하는 국제포럼에 가지고 나가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도록 종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백신인증서 상호인정과 보편적 검증 플랫폼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강조점은 올해 인도네시아가 G20 의장국으로서 설정한 세 개의 최고 우선순위 분야 중 세계 보건 프로토콜 조율이란 의제의 일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원래는 세계 경제포럼이어야 할 G20이, 조 바이든 미대통령이 러시아를 G20에서 제명할 것을 주장하는 등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외교적 전쟁터로 변하고 있어 인도네시아는 G20 의장국으로서 현재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러한 국제정세에도 불구하고 보건실무그룹 막시 위원장은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 관련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인니, 학생 8명 임신시킨 ‘인면수심’ 교사 항소심 사형



▲ 미성년 여학생 13명 성폭행으로 사형 선고받은 헤리 위라완

인도네시아 이슬람 기숙학교에서 미성년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임신시킨 ‘인면수심’ 교사가 항소심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

5일 일간 콤파스 등에 따르면 서부 자바주 반둥 고등법원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 겸 재단 운영자 헤리 위라완

(36)의 항소심에서 1심 무기징역 판결을 깨고 사형을 선고했다.

헤리는 2016년부터 작년 말까지 자신이 가르치는 16~17세 여학생 1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 가운데 8명은 9명의 아이를 출산했고, 현재도 임신 중인 피해자가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종교 과목을 가르친 헤리는 성폭행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 라고 속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고,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 피해 학생들을 건설 현장에 투입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공

분을 샀다. 검찰은 당초 사형과 화학적 거세(성충동 억제 약물치료)를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화학적 거세는 징역형을 마친 뒤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헤리에게는 선고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인도네시아의 사형수는 5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인도네시아는 2015년과 2016년 외국인 등 마약사범 18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6년째 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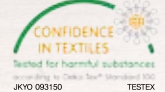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당국은 2019년 하반기 ‘사형 집행 재개’ 방침을 내놓아 사형수들이 떨고 있으나 현재까지 집행이 재개되지는 않았다.

이번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당국은 인도네시아 전역에 운영 중인 2만5천개 이상의 이슬람 기숙학교 ‘프산트렌’(pesantren)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나섰다.

프산트렌에 등록된 약 500만 명의 학생이 낮에는 정규 수업을 듣고, 저녁까지 이슬람 경전 쿠란 학습을 계속한다. 지난해 프산트렌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가 공론화된 사건만 해도 14건에 이른다.



파인트리 재봉사



친환경 수성분도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 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g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보시라고?

아침에 조금 일찍 집을 나서며 목련꽃 사진을 찍는다. 요즈음 매일 반복하는 일이다. 나날이 눈곱 반 만큼씩이나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지가 거의 한 달이다. 물이 오르면 두꺼운 껍질을 벗어나느라 곤충이 허물 벗듯 안간힘을 쓰는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다. 봄비가 온 뒤면 더 달라진 것 같았다. 3월의 마지막 날. 드디어 만개한 것 같다. 앞으로 1주일이면 시들고 떨어질 것이다. 활짝 핀 개나리나 벚꽃도 한 때다. 그래 '화무10일홍' 이라서 더 귀하고 좋은 것이다. 언제나 꽃이 핀다면 이리도 귀하게 쳐다보겠는가 말이다. 보시는 한자가 비슷하다. 보시(布施), 보시(報施), 보시(普施)로 써도 통한다. 무재7시(無財七施) 이야기를 듣고는 없는 재물을 어찌겠는가 하고 다른 베풀음을 생각해 본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관찰다 싶은 것이 있으면 사진에 담아둔다. 그걸 좋은 이웃들과 나누는 것이다. 딱히 할 말이 없을 때는 사진 한 장을 보낸다. 무슨 입 발린 말 보다는 백배 나은 보시다. 반응은 제각각이다. 묵묵부답인 사람도 더러 있다. 바빠서 그럴 것이다. 간혹 거북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

여섯 번을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면 또 보내기가 부담스럽다. 즉시 회신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은 안 바빠서 그럴까?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아니다. 마음인 것 같다. 그걸 그릇으로 비유해 본다. 그런 사람은 그릇이 넉넉해 보인다. 모나거나 찌그러지지 않은 그릇일 것 같다. 둔탁하지 않고 경쾌한 울림이 있는 그릇. 놋그릇(유기; 鎚器)처럼 담아두면 음식이 상하지 않는 그릇 말이다. 이 사람은 시인일거야! 그런 사람이 있다. 울림이 있다. 공명(共鳴)이라고 한다. 공감(共感)지수라는 것으로 크기를 재면 아주 높은 사람일 것이다. 댓글 몇 마디가 다 시(詩)다. 감자라는 동요가 있었다. "하얀 꽃 핀 것은 하얀 감자, 파보나 마나 하얀 감자~" 어려서 불렀다. 우리는 감자밭 이랑을 따라 감자 꽃을 따서 버렸다. 뿌리로 가야할 양분이 씨로 가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별로 예쁘지도 않았기에, 또 부모님이 시키기에 미련 없이 따서 버렸지만 꽃을 덩겅 따버리는 것에 미안한 마음은 있었다. 그런데 어찌다 자주색 꽃이 있었다. 그걸 눈여겨 두었다가 썰 때 보면 자주감자다.

귀해서 인기 있었다. 줄기나 잎, 꽃의 색을 보고 그 뿌리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고구마다. 다른 덩굴식물도 잎이나 줄기의 색을 보면 꽃이나 열매, 뿌리의 색을 짐작할 수가 있다. 그것은 거의 맞다. 정직해서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속내를 감추는 사람일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과잉 친절이다 싶으면 꺼려지는 것도 당연하다. 인간관계는 손해 보듯 해야 오래 간다. 베풀면 더 오래 가고.... 오징어게임 이후, 향간에 부쩍 화제인 작품이 하나 있다. 애플TV+에서 방영하는 "파친코"를 보면 "미나리"에 나오는 그 할머니가 또 할머니로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부산 영도에서 하숙을 친다는 어느 집에 언청이 총각이 장가를 들지 못했는데 가난에 입을 달여야 했기에 그의 색시가 되어, 낡은 아들 셋을 다 잃고 갖은 고생 끝에 푸닥거리까지 해서 막내로 낳은 똑순이 딸이 자라 지금 그 할머니, 백발이 성성한 선자로 나오는 것이다. 파친코는 일제강점기에 오사카로 건너간 한국인 이민자, 선자의 4대에 걸친 이야기를 담은 텔레비전 시리즈로, 선자의 아들은 파친코라는 도박장을 하며 산다. 그게 또 제목이다. 드라마는 경상도 사투리가 심해서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다행이도 '경상도 문둥이'인 나는 편하고 좋다.

경상도사람들은 반갑고 친하면 '야 이 문둥애!' 하고 부른다. 그렇다고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 비하하는 것도 전혀 아니다. 귀여운 어린애기를 입상이나 개똥애! 하고 불렀던 것과 다르지 않다. 곤궁하고 핍박받는 삶에서도 베풀고 보듬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드라마 곳곳에 보인다. 어떻게든 딸을 잘 키워보겠다는 선자의 애비는 정(情)을 가르친다. 그래서 베풀고 산다. 야쿠자들이 설치하는 뒷골목에서 탈세해가며 어렵게 번 돈을 북의 자금줄로 대던 것이 조총련의 파친코였다. 그때 망경봉호가 두 나라를 오고갔다. 제일동포 북송사업으로 9만3천여 명을 북에 보냈고 그들의 삶은 폭망이었을 터. 망경봉호의 왕래는 일본 정부와의 마찰로 중단된 지 오래다. 북한 출신들이 일본에 살면서 충성심으로 돈을 보냈을까? 북한 정부는 조총련에 무슨 보시를 얼마나 했을까? 북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단가? 21세기 첨단정보기술 시대에 이웃 나라를 무력으로 짓밟는 백정만도 못한 놈이 있다. 그 미친 놈 하나 때문에 수백만 명이 한겨울에 피난길에 올라야 했고 난민이 되었다. 나라는 파괴되었고 피아간에 수천이 목숨을 잃었다. 그걸 보고도 두들겨 패지 못하는 정의가 부끄럽다. 보시는커녕, 스스로 지키지 못하면 자유도 목숨도 없는 것이 구나!



조기조 박사

흠어들었다 모였다 하며 흰 구름은 쉬임없이 나를 따라 다니는데(白雲舒卷隨長我; 백운서권수장이), 저 붉은 단풍잎은 누구를 못 잊어 저리도 헤매는개(紅葉徘徊欲戀誰; 홍엽배회욕연수)? 4월이라 냇물이 불고 천지에 초록이 등등한데 남산 기슭 어느 한 옥의 기둥에 들여다보는 사람 없는 주련(柱聯)하나가 내 마음 붙들고 말았다. 오늘 또 유난이도, 시인 백석을 못 잊어 수절하였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보시해 길상사로 만든 어느 보살님을 그리워한다. 백석이 마냥 부럽다.

조기조(曹基祚 Ky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인니 정부, 5월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세금 부과

인도네시아 세무당국자는 디지털 자산거래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5월 1일부터 암호화폐 거래에 부가가치세(VAT)와 자본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각각 거래가격에 0.1%씩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권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여 2021년 말까지 암호자산 보유자 수가 1,100만 명으로 급증했다. 상품선물거래규제청(Commodity Futures Trading Regulatory Agency)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상품선물시장에서 거래된 암호자산 총액은 859조4천억 루피아로 2020년 거래액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암호 자산을 상품으로 거래할 수는 있지만,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헤스투 요가 삭사마(Hestu Yoga

Saksama)관료는 언론 브리핑에서 가상 자산은 재무부가 정한 상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와 부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 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은 대부분의 인도네시아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11%를 훨씬 밑도는 반면 자본이익에 대한 소

득세는 총거래가액의 0.1퍼센트로 주식과 일치한다. 관리들은 작년에 통과된 광범위한 세법이 가상 자산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라고 말했다. 이 법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타격을 입은 세수확보를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최근 몇 주 동안 정부가 재정 통합을 위해 가격 통제 정책을 완화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일부 지역에서 디젤 부족과 연료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세계 유가의 급격한 상승이 인도네시아로 슬금슬금 다가왔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6일 보도했다. 물류회사들은 특히 수마트라, 술라웨시, 깔리만탄의 주유소에서 트럭들이 보조금 경유인 솔라(Solar)를 기다리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국영석유회사 빠르타미나(Pertamina)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모든 휘발유와 디젤 브랜드의 가격을 인상하여, 일부 소비자를 제외한 보조금을 받는 석유품종으로 몰리게 했다. 게다가, 정부는 보조금을 받는 빠르타리프(Pertalite) 브랜드의 휘발유와 3킬로그램의 액화석유가스(LPG)의 가격을 수개월 내에 점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세계경제 회복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치솟는 유가의 영향으로부터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에너지 가격 통제 정책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세계 원유 기준치인 브렌트는 배럴당 미화 100달러를 넘어섰는데, 이는 에너지 보조금으로 134조 루피아를 책정했던 2022년 국가 예산의 배럴당 추정치인 63달러보다 거의 두 배나 높은 수치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CORE)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l) 전무이사는 5일 빠르타리프의 가격 인상은 대중 교통비와 주요식품 가격 상승이 예상돼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하위 중산층의 구매력을 잠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에 달하는 재정적자 상한선을 회복하는 것을 포함하

세계 오일쇼크 인도네시아에 상륙



▲ 빠르타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는 재정 통합 계획을 달성함에 있어 에너지 보조금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 통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외에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빠르타미나에 대해 특정매출 손실과 보조금에 대해 보상할 의무도 있다. 빠르타미나는 지난 1일 보조금을 받지 않는 빠르타막스(Pertamax) 브랜드를 리터당 9,400 루피아에서 최대 리터당 13,000

루피아로 인상했지만 여전히 이 가격이 리터당 16,000 루피아의 경제적 가치를 밑돌고 있다고 언급했다. 빠르타미나 자료에 따르면 모든 휘발유와 디젤 소비 중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연료 소비는 17%이고 이 중 빠르타막스(Pertamax)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머지 83%는 보조금이 있는 경유(Solar)와 빠르타리프다. 빠르타미나의 연료 유통 자회사

인 빠르타미나 빠뜨라 니아가(PT Pertamina Patra Niaga) 알피안 나수디온(Alfian Nasution)에 따르면 빠르타막스 가격이 인상된 후 더 많은 소비자들이 보조 연료로 전환하면서 빠르타리프 소비가 10~15%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하게 빠르타미나에 따르면 부분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디젤 부족은 트럭 회사들이 가격 인상 후에 보조금 없는 디젤 브랜드 구매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에 따른 연료 수요 증가, 올해 경유(Solar) 생산량 감소, 불법 유통 등이 이러한 부족의 또 다른 요인이다. 에너지 전문가인 위디아완 브라위라아드마자(Widhyawan Prawiraatmadja)는 추가 수요의 급증은 빠르타리프(Pertalite) 부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는 빠르타리프 수요가 소비자 수요의 변화에 따라 연간 할당량을 15% 초과한 2,650만 킬로리터로 예상하

고 있으며, 2월 현재 빠르타리프 실제 유통량은 이미 426만 킬로리터로 2월 할당량을 18.5% 초과했다. 개혁 연구소(Reforminer Institute)의 꼬마이디 노또네고로(Komaidi Notonegoro) 전무이사는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연료를 고려할 때 절대적인 연료 공급은 여전히 비교적 안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가 빠르타미나에 대한 보조금이나 보상을 제공하는 재정 능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가격 인상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료유 부족'으로 정의되는 에너지 위기는 아직 멀었다고 말한다. 핵심서비스개혁연구소(Institute for Essential Services Reform, IESR) 팜비 투미와(Fabby Tumirwa) 전무는 빠르타리프 소비가 연간 쿼터를 넘지 않도록 유통 통제와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연료를 사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써밋츠, 인도네시아 최초 미용의로 플랫폼 MyVenus 출시

써밋츠가 인도네시아 현지 프리미엄 쇼핑몰 ASHTA에서 인도네시아 최초의 미용의로 플랫폼 MyVenus의 그랜드 출시 이벤트를 진행했다. MyVenus는 미용의로 시술 정보 비교부터, 유저 후기 확인, 시술 상품 구매까지 가능한 인도네시아 최초의 미용의로 전문 플랫폼이다. 써밋츠가 지난 4월 1일에 출시했다. 이번 그랜드 런칭 이벤트는 인도네시아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이자 MyVenus의 마케팅 총괄이사 미치모모(Michimomo)가 인도네시아 미용의로 시장의 혁신을 이룰 것이라든다 콘셉트로 진행했다. 인도네시아 미디어사와 인플루언서들이 대거 참석했다.

써밋츠는 플랫폼 MyVenus를 통해 오프라인 중심의 인도네시아 미용의로 시장을 디지털화해 과다한 경쟁과 광고비를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미용의로 서비스 공급자들의 비수기와 손님이 없는 시간대를 활용해 할인율을 최대로 높여 소비자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써밋츠는 북경대 의대를 졸업한 황유진 대표와 인도네시아 NH코린도증권 출신 금융전문가 조경훈 이사, 놀이의 발견과 네이버 OGQ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축해 온 곽신재 이사, 인도네시아 유명 뷰티 인플루언서 미치모모 이사가 공동

로 창업했다. 황유진 써밋츠 대표는 "이번 그랜드 런칭 이벤트를 통해 인도네시아 미용의로 시장에 작은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며 "앞으로 인도네시아 소비자들께서 안전한 병원에서 좋은 시술을 좋은 가격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경훈 이사는 "이번 그랜드 런칭 이벤트 이후 동남아 투자자들의 미팅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인도네시아 최초의 미용의로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써밋츠는 인도네시아 미용의로 시장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근마켓 초기 투자자로 알려진



▲ 오른쪽 세번째부터 왼쪽으로 황유진 대표, 미치모모 이사, 조경훈 이사. 뉴스1

캡스톤파트너스, 기술 창업 전문 투자사인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인도네시아 대기업 Unifam 그룹의 투자 홀딩스 유나이티드 패밀리 캐피탈(United Family Capital)에서 시드 투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말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창업 프로그램 팁스(TIPS)와 신용보증기금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OpenNEST200에도 선정된 바 있다.

파이낸셜 뉴스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섬유패션 70곳 상장사들은 작년 실적에서 반등의 불씨를 살렸다. 코로나 19 사태가 지속되는 불황에도 불구하고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급성장했다. 이들 상장기업 실적을 결산한 결과 섬유패션 상장사는 전년과 비교해 평균 매출이 29.3% 늘었다. 작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7.9%)이 줄었던 기저효과 영향도 있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매출이 평균 20.4% 늘었다.

기업 실적의 가장 중요한 지표인 작년 영업이익은 2.8배(179.3%) 성장했다. 2019년 대비 2배(106.7%) 이상 올랐다. 영업이익 부문에서 13개 기업이 흑자 전환한 반면 적자로 바뀐 기업은 6곳에 불과했다. 작년과 비교해 흑자 전환 기업이 크게 증가한 점이 눈에 띈다. 적자지속 기업은 12곳이었다. 영업이익률 평균은 전년 동기 대비 5.4%포인트 늘어난 10.0%를 기록했다. 1000원어치 상품을 팔아 100원을 남겨 수익성이 좋아졌다.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속된 불황에 조직을 정비하고 유통 및 경영 합리화, 사업 다각화를 통해 불황에 강한 체질로 거듭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급성장한 것은 경영합리화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상장기업 70곳의 당기순이익은 전년비 2.5배(165.6%)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업계는 섬유패션 시장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분석한다. 코로나 유행이 지속 재발하는 등 위험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제조 원가 부담 및 인플레이션 우려 등 글로벌 경기애 먹구름이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화섬, ESG 앞장서며 6사 급성장
업종별로는 화섬이 재작년에 이어 작년(2021년)도 가장 급성장한 실적을 기록했다. 화섬업종 6사 모든 기업이 플러스 성장했다. 매출은 평균 84.4% 쉼쉼 뛰었고 영업이익은 5배 이상(463.9%)의 고성장했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매출(54.4%)과 영업이익(261.5%)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국내 페페트병을 활용한 리사이클 페페트병 원사사업에 역량을 집중 등 ESG 경영을 확대한 결과다.

효성티앤씨와 티케이케미칼은 매출과 혹은 영업이익에서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 효성 섬유부문은 코로나 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증설계획 취소 등으로 스판덱스 생산량이 늘어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스판덱스를 공급하면서 판가 상승 및 판매 증가로 이어졌다. 섬유 부문 매출은 작년 대비 127.1% 증가했고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455.4% 늘었다. 티케이케미칼은 매출이 61.6% 급성장했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작년 영업이익(665억)은 2011년 상장 이후

2021 섬유패션 상장 70사 결산, 체질개선으로 반등 불씨 살렸다

영업이익률, 전년보다 5.4%포인트 상승한 10.0% 패션업종, 경영 효율화에 대기업 쏠림 약화돼 긍정적 시그널 우크라이나 사태 · 원부자재 상승 등 경제 불확실성에 성장 위태

구분	회사명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이익률	순이익	증감률	이익률
면방(7)	경량(연결)	3,834	16.4%	538	146.2%	14.0%	223	71.1%	5.8%
	대한방직(연결)	2,004	14.3%	54	52.3%	2.7%	16	-41.1%	0.8%
	다이아동일(연결)	8,131	19.6%	486	84.3%	6.0%	463	92.7%	5.7%
	*방림(연결)	1,310	12.4%	64	흑전	4.9%	74	45.6%	5.7%
	일신방직(연결)	6,010	29.3%	610	350.0%	10.1%	642	515.5%	10.7%
	전방(연결)	1,337	22.2%	74	흑전	5.5%	2	-97.3%	0.1%
	SG글로벌(연결)	578	-32.1%	-6	적전	-	-56	적지	-
소계	23,203	18.6%	1,819	257.9%	7.8%	1,364	131.7%	5.9%	
화섬(6)	대원화섬	1,173	35.0%	32	5.3%	2.7%	244	50.4%	20.8%
	코오롱머티리얼	36	58.8%	-19	적지	-	-152	적지	-
	태광산업(연결)	25,918	48.9%	3,553	563.6%	13.7%	3,184	104.4%	12.3%
	티케이케미칼	6,939	61.8%	665	흑전	9.6%	3,508	흑전	50.8%
	*효성티앤씨(연결)	73,066	127.1%	13,842	455.4%	18.9%	-	-	-
	유비스(연결)	10,826	17.6%	65	-63.7%	0.6%	35	-95.8%	0.3%
	소계	117,958	84.4%	18,138	463.9%	15.4%	6,819	184.6%	5.8%
의류수출(6)	국동(연결)	2,270	-10.4%	-36	적전	-	-79	적전	-
	엠에프코리아	1,154	17.5%	-155	적지	-	-175	적지	-
	영원무역(연결)	27,925	13.2%	4,425	70.4%	15.8%	3,343	83.3%	12.0%
	윌비스(연결)	2,765	15.4%	44	84.0%	1.6%	-85	적지	-
	태평양(연결)	8,929	13.7%	14	흑전	0.2%	-140	적지	-
	한세실업(연결)	16,220	-1.5%	1,067	64.5%	6.4%	673	160.7%	4.0%
	호진실업(연결)	3,449	17.9%	206	1239.8%	6.0%	118	흑전	3.4%
SG세계물산(연결)	1,357	-19.1%	-47	적지	-	470	흑전	34.6%	
소계	64,569	7.6%	5,517	67.9%	8.5%	4,124	141.2%	6.4%	
기타(8)	다케이앤디(연결)	753	6.4%	27	-47.7%	3.5%	-20	적전	-
	레온	334	-58.3%	-131	적전	-	-520	적전	-
	삼영상(연결)	1,940	-2.2%	364	-36.9%	18.8%	331	-33.6%	17.1%
	신안(연결)	789	-38.4%	-61	적지	-	205	흑전	26.0%
	윌크(연결)	3,886	17.7%	132	-33.3%	3.4%	78	-21.6%	2.0%
	유니(연결)	1,233	-2.3%	95	-38.0%	7.7%	35	-68.5%	2.9%
	일정실업(연결)	318	1.5%	-81	적지	-	-75	적지	-
소계	10,296	7.1%	109	-27.6%	10.5%	112	-43.0%	10.7%	
패션(41)	공구우먼	473	44.8%	103	92.0%	21.8%	88	101.7%	18.5%
	그리드(연결)	1,087	-12.0%	-76	적전	-	-71	적전	-
	까스탈(연결)	747	11.0%	-43	적전	-	-67	적전	-
	대원	2,879	13.7%	224	214.3%	7.8%	192	113.4%	6.7%
	더네이처물산	3,703	26.3%	689	26.5%	18.6%	583	52.2%	15.7%
	베일(연결)	215	-19.4%	-77	적지	-	-70	적지	-
	브랜드앤스코퍼레이션(연결)	1,727	24.7%	108	34.7%	6.3%	78	11.0%	4.5%
비비안(연결)	1,879	2.5%	14	-29.5%	0.8%	-32	적지	-	
*삼성물산(패션부문)	17,669	14.3%	1,003	흑전	5.7%	-	-	-	
*신성물산(연결)	11,999	16.8%	743	79.3%	6.2%	288	831.8%	2.4%	
신세계인터내셔널(연결)	14,558	9.5%	920	172.4%	6.3%	826	62.2%	5.7%	
신세계물보이	1,128	-3.7%	77	3281.5%	6.9%	121	1029.3%	10.8%	
신영외교(연결)	1,894	6.4%	37	616.0%	1.9%	65	122.3%	3.4%	
신백(연결)	8,794	26.7%	216	7104.8%	2.5%	105	흑전	1.2%	
쌍방울(연결)	970	-0.2%	-23	적지	-	-186	적지	-	
이강원(연결)	1,510	23.3%	59	흑전	3.9%	131	흑전	8.6%	
에스케이(연결)	1,497	39.8%	291	61.5%	19.4%	232	48.0%	15.5%	
에스티오(연결)	645	-5.8%	3	흑전	0.5%	3	흑전	0.5%	
원용물산	309	6.1%	-13	적지	-	-93	적지	-	
인디애나(연결)	1,487	-2.7%	-221	적지	-	-201	적지	-	
체로투세(연결)	1,120	-20.6%	23	310.1%	2.1%	12	흑전	1.0%	
제이에스코퍼레이션(연결)	9,870	145.0%	610	667.4%	6.2%	483	1581.8%	4.9%	
제이(연결)	673	12.2%	14	흑전	2.0%	176	흑전	26.2%	
중은사(연결)	901	-19.6%	-125	적지	-	-398	적지	-	
지연코(연결)	1,354	5.7%	-8	적지	-	-200	적지	-	
진도(연결)	590	8.2%	38	흑전	6.4%	36	흑전	6.1%	
코넥츠(연결)	383	17.8%	43	16.3%	11.2%	66	17.2%	17.3%	
*코오롱인더(패션부문)	10,181	17.3%	291	흑전	2.9%	-	-	-	
코웰패션(연결)	6,740	58.1%	924	13.4%	13.7%	652	-8.8%	9.7%	
크리스토프앤씨(연결)	3,759	28.6%	671	74.8%	23.2%	681	76.4%	18.1%	
토박스코리아	361	42.7%	29	흑전	8.0%	36	흑전	10.0%	
패션플랫폼	899	54.7%	60	241.1%	6.6%	155	1325.0%	17.2%	
한세(연결)	13,874	16.0%	1,522	49.1%	11.0%	1,115	31.4%	8.0%	
한세연계(연결)	2,077	-5.7%	-121	적지	-	-310	적지	-	
형지(연결)	655	-2.4%	-29	적지	-	-40	적지	-	
*형지엘리트(연결)	1,353	-8.6%	-3	적전	-	-8	적지	-	
힐라홀딩스(연결)	37,940	21.3%	4,529	44.5%	13.0%	3,378	70.8%	8.9%	
BY(연결)	1,644	1.8%	267	16.4%	16.2%	299	63.3%	18.2%	
LF(연결)	17,931	11.3%	1,589	106.1%	8.9%	1,362	376.1%	7.6%	
LS네트웍스(연결)	3,905	16.8%	43	흑전	1.1%	601	흑전	15.4%	
T&B글로벌	1,881	8.6%	53	흑전	2.8%	-196	적지	-	
소계	193,210	19.1%	15,055	124.1%	7.8%	9,892	211.3%	5.1%	
합계	405,236	29.3%	40,884	179.3%	10.0%	22,346	165.6%	5.4%	

*흑전=흑자전환 적전=적자전환 적지=적자지속
*방림은 9월 결산법인(2020.10.01~2021.09.30까지 1년 실적).
*신성물산·형지엘리트는 6월 결산법인(2020.07.01~2021.06.30까지 1년 실적).
*효성티앤씨·삼성물산·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섬유 또는 패션부문만 별도 집계.
*신규상장 F&F(2021.05.01~2021.12.31까지 8개월 집계) 연결 매출 1조 862억원, 영업이익 3227억원, 당기순이익 2319억원.

최대 실적으로 2018년보다 104억 원 높은 수치다. 보들용 페트칩 사업 호조로 화학부문 영업이익(390억)에서 큰 실적을 냈다. 화학부문 매출이 57.0% 성장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태광산업은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전 지표에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6배나 늘어나는 발군의 실적을 기록했다.

■ 면방, 수요 증가에 매출·영업이익 상승
면방 7곳은 작년, 원면 가격이 오르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 매출이 평균 18.6% 올랐다. 작년 글로벌 시장의 수급 불균형 사태가 발생하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영업이익은 평균 3.6배(257.9%) 증가했다. 다이아동일은 매출이 19.6% 늘어나 8000억원을 넘어서었다. 영업이익은 84.3% 급성장했다. 공급선 다변화로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주력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통해서다.

일산방직은 면방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급성장하며 가장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매출은 29.3% 올랐고 영업이익

은 4.5배(350.0%) 증가한 610억원을 기록했다. 방림과 전방은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일신방직은 주력 생산 제품인 CM사 생산을 증대시켰고 수익성이 좋은 콤팩트(COMPACT), 오가닉(ORGANIC), 슬러브(SLUB)사 판매를 확대했다. 수출시장에서는 미국, 중남미, 동남아로 시장을 다변화하며 유연하게 대처한 것이 성과를 냈다.

■ 의류수출, 영원무역 부동의 1위, 성장 주도
4년간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의류수출업종은 선방한 한해였다. 부동의 1위 영원무역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2%, 70.4% 상승했다. 작년 글로벌 생산 기지 베트남 지역의 공장이 락다운(봉쇄) 정책에 문을 닫으면서 다른 OEM 기업들은 생산 차질이 이어진 데 반해 이 회사는 주요 생산기지가 방글라데시에 있어 수요에 빠르게 대응한 결과다.

한세실업은 여전히 리딩 기업으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고 매출이 전년비 1.5% 줄었다. 평균 환율의 하락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회사는 생산성을 높이고 고정비용을 축소해 효과로 작년 영업이익이 64.5% 증가했다. SG세계물산(-19.1%), 국동(-10.4%), 한세실업(-1.5%)은 매출이 줄었다. 태평양물산은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했다.

■ 패션, 상위 독식서 벗어나 고른 성적표
41개 패션 상장기업은 평균 매출과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전 지표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았다. 2020년은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작년 평균 매출은 19.1%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2배(124.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삼성물산, 코오롱인더스트

리, LS네트웍스 등 9곳이 흑자로 전환됐다. 13곳이 적자가 지속됐고 3곳(그리티, 가스텔바직, 형지엘리트)은 적자로 돌아섰다. 위드코로나 시대가 된 작년은 전년보다 패션 소비가 조금씩 늘어났고, 조직 쇄신 및 사업 다각화로 예상보다 뛰어난 실적을 올렸다. 예년보다 상위 기업에 쏠림 현상이 줄었다.

상위 5개 기업(힐라홀딩스·삼성물산패션부문·LF·신세계인터내셔널·한섬)이 패션업종 전체 매출의 52.8%, 영업이익의 66.2%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곳 매출(10조1921억원) 비중은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1.5%포인트 줄어들었다. 영업이익 비중은 2019년 대비 11.0%포인트 감소했다.

삼성물산 패션부문은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전 브랜드 실적이 개선됐다. 매출은 전년대비 14.3% 증가한 1조766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하며 1003억원을 기록했다. 온라인 사업 확대와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했고 저수익 브랜드 및 유통 채널은 지속적으로 효율화해 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구축하는데 주력했다.

2019년 3조 매출을 돌파한 힐라홀딩스는 2020년 매출(-21.1%) 부진을 만회했다. 작년 매출이 21.3% 올랐고 영업이익도 44.5% 뛰었다. 디스크버리를 전개하는 F&F는 작년 1조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연결 매출(5월~12월)이 1조892억원, 영업이익이 3227억원을 기록했다. 작년 매출이 1조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ODM·OEM 핸드백 및 의류 제조기업 제이에스코퍼레이션은 매출이 작년보다 2.5배(145.0%) 급성장했고 영업이익(667.4%), 당기순이익(1981.8%) 세 마리 토끼를 잡았다. 특히 전체의 75.9% 비중을 차지하는 의류 매출은 3배 이상(210.1%) 뛰었다. 중소기업의 약진이 눈에 띈다. 코웰패션(58.1%), 패션플랫폼(54.7%), 공구우먼(44.8%), 토박스코리아(42.7%), 에스케이그룹(39.8%)이 매출이 급성장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재외동포재단,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오프라인) 참가자 모집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지난 2년간 시행하지 못했던 차세대 재외동포의 모국 방문 사업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오프라인) 참가자를 4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모집한다. 청소년(만14세~18세)은 7월 14일~19일, 7월 28일~8월 2일, '23년 1월 12일~17일 각 5박 6일간 1,500명을 대상으로 세 차례, 대학생(만18세~25세)은 7월 20일~27일, 8월 3일~10일 각 7박 8일간 50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서울과 지방 도시에서 각각 실시될 예정이다. 코로나 이후 2년여 만에 치르는



▲ 2019년도 재외동포청소년 모국연수 1차 Peace Korea 임진각 행사 (사진=재외동포재단 제공)

행사인 만큼 올해부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전국 국립청소년수련 시설들을 활용, 철저한 방역과 안전한 연수환경 제공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모국연수 최초로 동계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그간 하계연수에 참가가 어려웠던 지

역의 차세대에게도 모국 방문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계절별 다양한 모국의 모습과 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김성곤 이사장은 "한민족 정체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흥익인간 정신을 몸소 체득하여, 세계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코리아로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이번 모국연수프로그램에 국내외 청소년, 대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온라인연수도 3,000명 규모로 계획하고 있으며, 추후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재단/자카르타경제신문]

트레이닝팬츠, 조거팬츠 전년대비 판매량 50% 증가 브랜드, 데이터 분석결과 구매자 전체 90%가 10~20대



지난해 집콕 패션으로 인기를 얻은 트레이닝과 조거팬츠가 올해도 인기를 끌고 있다. 커머스 플랫폼 빌더 브랜드(대표이사 서정민)는 트레이닝팬츠와 조거팬츠 거래액이 전년대비 5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랜드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캐주얼웨어 거래액을 조사한 결과다. 밴딩이 들어간 트레이닝팬츠와 발목을 조여 주는 조거팬츠는 힙한 스타일

링은 물론 편안함이 강점으로 지난해부터 집콕 패션을 넘어 이제는 일상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트레이닝팬츠와 조거팬츠의 인기는 Z세대를 중심으로 뜨거웠다. 상품 구매자의 연령대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의 90%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원격 수업이 지속되면서 편안함과 멋을 낼 수 있는 트레이닝룩이 인기를 얻

으면서, 이에 따라 상의와 하의를 세트로 맞춰 입는 트레이닝세트, 트랙세트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 트레이닝팬츠를 활용한 스타일링이 트렌드로 자리 잡음에 따라 매칭해 입기 좋은 상의류인 맨투맨과 후드집업 상품의 거래액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맨투맨과 후드집업 거래액 역시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했다. 브랜드는 오는 10일까지 ‘편안한 일상을 위한 후드&맨투맨 코디법’ 기획전을 통해 캐주얼웨어를 약 20% 할인 판매한다. 크롭 맨투맨, 집업 맨투맨 등 다양한 스타일을 모아 선보일 예정이다. 브랜드 관계자는 “올해 빈티지, 스트릿패션 무드의 레트로룩이 인기를 얻으면서 트레이닝팬츠나 맨투맨 등을 활용한 꾸안꾸(꾸민듯안꾸민듯) 스타일링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날씨가 풀리고 거리두기 완화 등의 영향으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힙하면서도 실용적인 트레이닝팬츠와 같은 캐주얼웨어 아이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캐리스노트, '본 보야지' 콘셉트 22SS 컬렉션
여행의 설렘과 추억 담은 리조트 무드 제안

형제&C의 캐리스노트가 '본 보야지' 콘셉트 테마의 22SS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 테마 '본 보야지'는 '여행 잘 다녀오세요'라는 프랑스어 인사말이다.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잊혀졌던 여행의 설렘과 추억을 담았다. 시즌 트렌드 컬러인 뉴트럴 컬러의 조화가 어우러진 이국적 리조트 무드를 제안한다. 컬렉션 콘셉트에 맞게 우표와 엽서를 모티브로 파리 에펠탑, 열기구 등 여행으로 연상되는 떠오르는 이미지와 보타닉을 결합해 여성스럽고 생동감이 느껴지는 아

트웍을 개발했다. 이번 컬렉션에서는 고급스럽고 자연스러운 무드의 린넨 스트라이프와 아일릿 레이스가 돋보인다. 일상생활에서 편히 입을 수 있는 부드러운 터치감의 기능성 소재와 은은한 광택을 품은 드레이퍼리한 소재를 사용했다. 이외에 데일리 룩과 홈웨어가 믹스돼 럭셔리하고 자연스러운 핏의 라운지 웨어를 선보였다. 또, 핸드터치 등 회화적 기법의 프린트를 티셔츠나 데님라벨 텍스처에 반영해 활용도 높고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LED등의 모든것 비교할 수 없는 가격!

놀라운

NEXTIN
LED LIGHTING

Jakarta Office
Plaza Kenari Mas
Jl. Kramat Raya No. 101, RW.1, Paseban,
Kec. Senen, Kota Jakarta Pusat,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10440
Telp: +6221-3104414

Cikarang Warehouse
Jl. Industri Utara 4 Blok SS 6B
Kaw. Industri Jababeka Cikarang,
Ds. Mekar Mukti Kec. Cikarang Utara,
Kab. Bekasi 17520
Telp: 021-8935075 / 77
021-89842162
Fax. 021-8937739

Contact Person
kimsk@ptdaehwa.com
0815-1902-4272
shkim@ptdaehwa.com
0811-174-711

LED TUBE T8 18W	
	Price Rp. 60.000 Lumen : 2100 Lm CCT : 6500K INPUT POWER : 1 Sisi / 2 Sisi
LED Highbay 100W/150W	
	Price 150W Rp. 1.400.000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factor : 0,95 CCT : 6500K
LED Lowbay 50W/100W	
	Price 50W Rp. 250.000 Voltage : 90v~250v Base Fitting : E27 CCT : 6500K

LED STREETLIGHT 50W/100W/150W	
	Price 100W Rp. 720.000 Waterproof Class : IP65 Power : 100W CCT : 6500K
LED Downlight 6W/12W/18W	
	Price 12W Rp. 60.000 Power : 12W CCT : 6500K
LED Flat Light 48W	
	Price Rp. 400.000 Size : 60x60 / 120x30 CCT : 6500K

Ex PPN / Jabotabek Price

글로벌 공급망 대란...미국으로 돌아가는 생산공장

나이키, “베트남 공장 재개됐지만 물류는 작년보다 2주 더 걸려”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계속되자 패션 회사들은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래리 핑크 블랙록 CEO는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온 세계 질서가 무너졌다”며 “미국 기업은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 업체들은 코로나 팬데믹과 대중갈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끝나지 않는 글로벌 공급망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미를 선택하는 것이다. 뉴발란스는 올초 매사추세츠 주 메톤에 북미 지역 5번째 제조 공장을 열었다. 연간 약 75만켤레 신발을 생산할 수 있는 8만 평방피트 규모 생산 공장으로 지난 1월 가동을 시작했다.

이 공장에서는 뉴발란스 메인드인 유에스에이 라인 최고 인기 모델인 ‘990v5’를 만들고 있다. 현재 90여명의 직원을 고용했으며 올해 안 생산 능력과 인력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신발산업에서 지난해 나

이키,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 주요 생산지 중국과 베트남 생산 공장 락다운으로 타격이 컸다. 나이키는 지난 주 3분기(2021년 12월~2022년 2월) 실적 발표에서 “베트남 내 모든 공장이 재개됐지만 물류는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며 “미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팬데믹 이전 수준 대비 약 6주가 더 걸리고 작년 동기를 대비해도 2주가 더 걸린다”고 밝혔다.

코로나 이전 미국에서 판매된 신발의 약 70%는 중국산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소매업체는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다른 국가로 물량을 분산시켰다. 2021년 중국 제품 점유율은 60.3%까지 떨어졌고 그 뒤로 베트남이 23.3%, 인도네시아 출하량은 약 6%다. 상위 3개 생산국의 물량이 미국 전체 신발 수입량의 약 90%를 차지한다.

맷 프리스트 FDRA(미국 경제 분석국 신발 부서) CEO는 CNBC 뉴스에서 신발 공장의 북미 지역으로 회귀에 대해 “미국에서 생산을 늘리는

것이 쉬운 해결책처럼 보이지만 비용이 올라갈뿐더러 구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미국 내 카페들도 사람을 못 구해 안달이다. 인력이라는 원자재가 없다”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뉴발란스는 올초 매사추세츠 주 메톤에 북미 지역 5번째 제조 공장을 열었다.

제8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섬유·패션의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업체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문의 : 02-326-3600

출처 : 한국섬유신문

출처 : 한국섬유신문



▲ Freedom of wild animals 홍민아 작



▲ Flower of the ocean 임하경 작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 이래, 31년 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net
kenleejh@gmail.net

www.dongjung.net



2022 F/W 서울 패션위크 ‘미스지컬렉션’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커리어 여성들을 위해

지춘희 디자이너, 1980~90년대 복고 느낌의 긴장감 있는 구조와 선에 집중

‘미스지컬렉션’ 이 지난달 23일 22FW 서울 패션위크에서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커리어 여성들’을 위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1980~90년대 느낌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허리를 조이는 등 디테일 라인에 집중했으며 긴장감 있는 구조와 선을 살렸다. 팬데믹으로 인해 편안하고 루즈해졌던 느낌에서 벗어나 자켓과 코트, 정교한 실루엣의 원피스로 일하는 여성들이 찾을 옷을 만들었다.

원단의 90% 이상은 유럽 등에서 수입한 고급 소재다. 컬러는 브라운, 그레이, 블랙 등을 기조로 했고 핫핑크로 포인트를 줬다. 미스지컬렉션 22FW 패션필름 배경은 한양도성 유적 전시관과 안중근 의사 기념관으로 서울의 모습을 담았다.

가을 여신을 연상시키는 헤드 피스나 목걸이 등 액세서리와 신발은 딸린 지진희 팀장이 제작했다. 또, 미스지컬렉션 22FW 패션필름에는 배우 고민시와 황보름별이 참여해 브랜드 무드에 어우러진 런웨이를 선보였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국 점유율 1위!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TANGERANG Ruko Tatac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